

제 58 호

에이터



치유정원 '십자가의길 제VII처'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사회복지법인 성모의마을

제 58 호

메아리

2017. 7



발행일 | 2017년 7월 1일

발행인 | 남금숙

편집인 | 편집위원

발행처 | 사회복지법인 성모의마을

우)32907

충남 논산시 상월면 선비로 1166

Tel. 041)732-2085, 0889 Fax. 733-0587

CONTENTS

03. 여는글

성모기사회 100주년을 맞으며 함께하는 성모의마을 / 남금숙 원장

04. 자립

자립은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다 / 김양숙

06. 대통령선거

현장의소리 / 설비선

07. 신입직원글

신고합니다 / 정슬기, 전인숙, 최선진

08. 봉사방

초보 봉사자들의 이야기(봉사 적응기) / 대형환경 이관형 이사

10. 어울림

요셉1반의 반장을 뽑아주세요 / 서경준

11. 테마여행

설렘가득 제주여행 / 박서용

12. 외부사업

상담, 노래교실, 공예, 보치아, 놀이치료

14. 사진첩

성모의마을 이모저모

16. 후원 및 봉사자 현황

18. 수입지출현황

19. 성모의기사수녀회

여는글

성모기사회 100주년을 맞으며 함께하는 성모의마을



남금숙 원장

† Maria

올해로 성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신부님이 창립하신 성모의기사회가 100주년을 맞이합니다. 성모기사회는 콜베성인이 로마에서 유학중이실 때 프리메이슨이 주도한 반(反)교황 운동에 대항하여 1917년 10월 16일 성 막시밀리아노 콜베 신부가 창설한 국제적 성모 신심 단체로 “M.I.”라고도 불립니다.

성모기사회는 순명과 겸손을 기초로 성모 마리아의 보호와 중재 아래 죄인들과 이교도들 및 반교회적 비밀결사 단체의 회개, 갈라진 그리스도인들과의 일치를 위해 기도하며 기적의 메달을 항상 몸에 지니고 배포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콜베성이 폴란드에서 일본으로 선교여행을 시작하시고 선교지로 가실 때 시베리아철도를 타고 부산으로 가시는 기차 안에서 밖으로 보이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경치에 반하셔서 ‘이 아름다운 나라에 언제쯤 성모의마을이 세워질까’ 하고 동생신부님께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6년간의 일본의 선교를 끝내시고 폴란드로 돌아가셔서 형제들을 영적으로 성숙시켜주었고 이후 제2차세계대전으로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여 참패당한 후 아우슈비츠수용소에서 한 사람을 대신하여 순교하시고 그 열매가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성모의마을을 운영하는 저희 성모의기사수녀회가 일본에서 시작하여 한국에 진출해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성모의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올해 22살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콜베성인의 사랑의 밀알 하나가 이곳 논산에 떨어져 뿌리를 내려 성모의마을 이라는 이름으로 중증장애인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곳이 되었고, 많은 분들의 영적, 물적인 마음들이 더 하여지기도 하였습니다.

성모기사회 회칙 중 “각자 자신의 주어진 조건과 환경 안에서 각자의 방법에 따라, 모든 사람의 회개와 성화를 위해 모든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을 이용하되, 각자의 열의와 분별력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라고 사도적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모기사회가 100년이라는 시간안에서 다시금 쇄신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성모의마을이 사랑의 공동체로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편견없이 행복을 꿈꾸는 곳이기를 바래봅니다. 늘 저희 성모의마을을 위해 염려해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모든 은인들의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 머무시길 저희 성모의마을 가족들이 기도로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요한12,24)

‘자립은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다’

김양숙 생활1팀장

화단 가득한 야생화를 뽑아 현관입구 화분에 옮겨 심었다. 뜨거운 여름 햇볕에 잎들이 금방 시들해 졌다.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노심초사하며 그늘로 이동해 사흘정도 물을 주고 정성을 쏟았더니 생기가 생겨 쳐진 잎들이 뿌리를 잡아 꽃꽂한 자태로 현관에서 매일 아침 우리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듯 모든 식물도 제 자리를 옮기면 심한 몸살을 앓는데 시설 거주장애인의 지역사회자립은 얼마나 힘든 과정이 많은 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

우리시설은 80여명에 이르는 뇌병변 중증장애인의 생활하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이 갖는 특성과 서비스의 한계로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엔 인력과 재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시설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더 나은 장애인의 삶을 위해 욕구가 있는 장애인은 당사자의 동의 후 자립지원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봄이 오는 듯한 2월 우리시설에서 20여년을 동고동락하던 김○○, 박○○씨가 2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역사회자립을 위해 시설을 퇴소 하였다. 일반인의 생각으로는 성인들이 지역사회에 사는 게 특별한 일인가? 의문을 갖는 분도 있지만 이 두 분이 자립하기 까지 과정이 매우 험난했음을 언어로 대신해 본다.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의 지역사회자립은 당사자의 욕구가 있어도 보호자의 완강한 거부로 자립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대부분 좌절 된다. 이런 내재된 마음은 타인과의 관계 맷기를 어렵게 하며 서비스의 불만을 폭력적인 성향으로 표출하면서 시설 안에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 시키기 때문에 보호자의 자립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것이 자립의 성공 관건이다.

기관에서 자립지원프로그램을 통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논산시 놀뫼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연계하여 일상생활능력과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장애인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지역사회에 주택을 마련해 혼자 살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크다. 하지만 시설장애인에게 사회에서 지원해 주는 자립여건은 전무한 실정이다.

시설거주인은 오랜 공동체 생활로 단독 주거공간을 원하지만 논산시에는 자립프로그램을 연계한 체험홈이 없어 거주인 스스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체험홈이 있는 타시도로 이사를 가야 한다. 소득이 장애인연금 밖에 없는 거주인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일로 봐야 한다. 또한 20여년을 고향으로 알고 살아온 거주 장애인은 논산시 안에서 거주하는 것을 원하나 취약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은 단독가구를 구성하는 거주



장애인에게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고 2년마다 재계약하는 LH임대주택에 지원하는 것으로 시일을 앞당길 수 있었다. 96㎡인 아파트 보증금 구백만원이 넘는 자금마련을 위해 본인의 전 재산과 다른 이의 돈을 빌려 어렵게 마련했다. 아동청소년시설에서 생활하다 18세가 되어 사회에 나가는 입소인들은 얼마의 사회정착금이 지원 된다. 하지만 시설장애인을 위한 자립 지원금은 거주하는 시도마다 예산이 세워져 있느냐에 따라 지원되는데, 우리관할청에서는 예산의 어려움으로 이에 대한 지원은 없는 상태에 있다.

시설장애인은 퇴소 후 활동지원제도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퇴소계획서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고 장애등급 재판정과 활동지원시간을 결정 받은 후 전입신고를 마치면 재가 장애인으로서 복지서비스를 받는다.

박○○씨는 원가정의 지원이 어려워 아파트 입주를 위해 필요한 청소부터 가구, 가전제품, 생활필수품들은 시설과 직원들이 마음을 모아 준비해 주었으며 아파트 현관에 턱이 있어 훨체어 이동판을 제작해 설치해 주었다.

김○○씨는 천안에 있는 충남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

터 체험홈에 입주해 지역사회 완전한 자립을 위해 생활하고 있다.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참여하며 살고 있는데 가끔 궁금해서 전화를 하면 “왜 전화 했어요?”하며 “저 무지 바빠요. 전화 끊어요”하고 이야기해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5월말 시간을 내어 원장님과 체험홈 아파트를 방문했다. 말수는 없지만 호탕한 웃음으로 우리를 반겨주었고 평소에 관심이 많던 한글공부와 여가생활 참여로 바쁘고 행복해보였다.

내 집을 방문한 손님은 집주인이 대접해야 한다며 김○○씨가 점심을 사주었다. 즐겁고 좋은 말만 오갔지만 어려움이 왜 없지 않겠는가? 하지만 본인이 선택하고 결정했기에 뜻하지 않은 고난도 감사와 행복으로 여기는 두 분의 모습을 보면 인생의 감동이 느껴진다.

시설장애인의 지역사회자립은 더 많이 요구 될 것으로 본다. 한 사람의 자립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 참여와 주도적인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배려도 함께 해주길 바라며 제2의 인생을 시작한 두 분에게 힘찬 박수로 응원합니다.



대통령 선거

현장의 소리

설비선
생활재활교사



지난 5월 2일은 제 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성모의마을에서 진행되었고, 거주인들도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번 투표는 지난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극대화되어 성모의마을 거주인에게도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투표를 하면서 몸이 불편한 장애인에게는 투표를 하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 **거주인A씨** : 투표 용지 투표칸이 작아서 정확하게 칸안에 찍어야 하는 데 실수해서 무효가 될까 걱정이 되었어요.
조금 칸이 더 넓어지면 좋겠어요.

* **거주인B씨** : 투표 용지안에 후보들의 사진이 첨부되었으면 좋겠어요.
후보자가 15명인데 이름만으로 구분해서 기억하기가 어려웠어요.

* **거주인C씨** : TV토론이 종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투표를 미리 해야 해서 후보자를 더 살펴보고 판단하고 싶었는데 아쉬움이 남았어요.

* **거주인D씨** : 소중한 내 한 표를 행사했으니 내가 뽑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바로 잡아 주길 바랍니다.

높은 관심도에 비해 장애인의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아 거주인들은 그림의 떡이 될 뻔한 투표가 될 것 같아 노심초사 하였다.

그리고 사전투표과정을 지켜보면서 신체장애인은 신체를 사용하는데 제약이 있기 때문에 투표참여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장애에 대한 이해부족은 보람찬 투표 경험보다는 기분 좋지 않은 느낌을 받았다는 거주인들의 마음이 이번 투표 후의 이야기를 통해 전해졌다.

투표는 국민의 권리이다.
우리의 소중한 한표가 보다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본다.



신입직원글

신! 고! 합니~!!

**정슬기** | 요셉 1반 |

이 곳 성모의마을에서 거주인들과 함께 지낸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간다.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은 신입직원이지만 이곳에 많은 정과 이야기들을 가꾸어 나가는 것 같아 매일 출근 할 때마다 “오늘은 더 잘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설레임을 가진다. 항상 웃는 미소로 인사해주는 거주인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데 특히 요셉반 거주인들께서 나에게 친절을 베풀 때마다 감동을 느껴 스스로에게 사회복지자를 함에 있어 뿌듯함을 느낀다. 부족한 나에게 항상 친절히 대해주는 거주인들과 함께 일하는 선생님들께 감사함을 전하며 항상 즐겁고 웃는 모습의 정슬기 교사가 되어 갈 것이다.

전인숙 | 마리아 1반 |

겨울에 성모의마을을 처음 맞이했는데 이제는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어간다. 요셉 1반 거주인들과 함께 지내다가 지금은 마리아 1반 식구들과 아옹다옹하며 지내고 있다. 우리 푸근한 낙○씨, 하루에도 몇 번씩 맑음과 흐림이 함께하는 저희씨, 요조숙녀 다○씨, 시사평론가 정관용씨를 아주 좋아하는 수○씨~^^ 모두 개성 강한 식구들이 살고 있다. 거주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늘 느끼고 그 힘으로 서로 같이 돌봐주고 돌봄을 받고 있다. 여러 계절 함께 거주인들과 함께하며 많은 추억을 쌓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되고 싶다.

최선진 | 요셉 2반 |

대체인력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가볍게 한달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지원을 하게 되었다. 한달 동안 일을 하면서 과연 적성에 맞을까?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됐지만 생각 보다 잘해나가는 나를 보게 됐고 일도 재밌게 배웠다. 한 달 동안 정들었는지 쉬는날이면 거주인들도 계속 보고 싶어 입사를 하게 되었다. 거주인들의 도움과 선생님들의 가르침으로 지금까지 잘 버텨낼 수 있었던거 같다. 지금은 햅병아리티를 조금 벗어던진 모습에 나름 만족하며 거주인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성모의마을 사랑합니다.

자원봉사방

초보 봉사자들의 이야기

봉사 적응기



이관형
대형환경(주) 이사

초보봉사자들인 우리는 논산 별곡에 위치한 대형환경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입니다.

창업 한 지 올해로 꼭 22년이 되는데 만 20년 이었던 2015년, 강희권님(대형환경 대표)이 신년사 중, “사람도 20년이면 성인이 되는데, 우리 회사도 20년이 되었으니, 무언가 성인 다운, 사회에 의미 있는 일을 해 보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임직원들의 의견을 모아, 봉사 활동을 하기로 결정하고, 봉사활동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은 매월 두 번째 토요일에 일정한 장소를 정하여 주기적으로 가자는 것과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것 이었습니다. 막상 계획까지는 순조로웠으나, 봉사 활동을 해 본 경험이가 매우 적었던 저희로서는 막연한 불안감과 꼭 해야만 하나? 하는 피동적인 마음 들을 골고루 겪으며, 설왕설래만 있을 뿐 봉사 실행의 진척은 더디기만 하였습니다.

그때, 강○권님이 성당 교우들과 갔었던, ‘성모의마을’을 봉사활동 장소로 제안하였고, 임직원들이 이에 동의하여 2015년 6월 봉사 활동의 첫 발을 딛는가 했더니, 결심과 포부를 시험하듯, 갑자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창궐하여 봉사활동 시행을 미룰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2개월의 유보 끝에 2015년 8월, 드디어 창립 이래 첫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방문한 성모의마을은 많이 낯설었습니다. 거주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도, 또 내가 과연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걱정이었습니다만, 직원분의 오리엔테이션을 통하여 시설 내에서의 주 의사항과 봉사할 수 있는 분야들을 설명 듣고 나니, 작게 나마 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겠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첫 봉사일.

휠체어를 밀고 시설을 돌며 거주인들의 산책을 돋고, 걸레를 밀어 시설 내부를 깨끗이 청소 하였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2~3시간의 짧은 시간, 약간의 수고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미안한 마음과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마음이 교차하였습니다.

첫날 이후, 우리는 매월 2주 토요일 오후가 되면 성모의마을로 갑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잔디가 잘 살 수 있도록 잡초를 뽑기도 하고, 등나무 넝쿨을 전지하여 시원한 그늘을 준비하기도 하며, 가을이면 낙엽을 쓸어 깔끔한 환경을 만듭니다. 주방에서 식재료 다듬기도 종종 하구요. 이곳 저곳에 필요하다면 작은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작은 변화도 있었습니다. 직원들 중 일부가 자

녀들을 데려오기 시작하고, 함께 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훌쩍 1년 10개월. 그리고 그 시간을 보내면서 일어난 작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처음 봉사는 특별한 그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다른 희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젠, 우리 초보자들도 압니다. 봉사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봉사는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함께 나누어 누리는 것’ 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함께 나누어 누리면 함께 행복하고 즐거워 진다는 사실을. 봉사는 일방이 아니라, 한 공간에서 서로 나누는 양방의 소통이었던 것입니다.

그 간의 짧은 경험을 이 글을 통하여 나누어 봤습니다. 혹시 이 글을 보실 지도 모를 초보님들께, 감히 권하고 싶습니다.

봉사.

“일단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지속”해 보세요.

지금 시작하는 당신의 작은 움직임은, 세상에 사랑을 더해 주는 매우 중요한 일이며, 당신으로 말미암은 그 사랑이, 당신과 당신을 둘러싼 이들을 더더욱 행복하게 해 줄겁니다.

감사합니다.



어울림



요셉1반의 반장을 뽑아주세요!

요셉1반은 입소거주인 중 집중케어가 필요한 거주인이 생활하고 있으며 보다 나은 서비스지원을 위해 올 초 새로이 구성되었습니다. 요셉1반 가족들을 소개하며, 반을 이끌어 갈 반장을 여러분이 뽑아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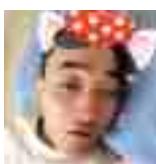
서경준
생활재활교사



기호1번 더불어아프지말자당

1 박○우

요셉1반을 1반답게 L-tube, G-tube가 미래다. 더불어아프지말자당 박○우입니다. 말보다 저의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슴처럼 맑은 눈망울과 조각 같은 얼굴..말하지 않아도 신뢰 가는 외모~ 제가 반장이 된다면 생기가 넘치는 반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기호2번 자유행복당

2 정○원

진정한 행복을 원하신다면 무조건 저의 편이 되어주십시오. 제가 아페보니 행복은 마음먹기 달려 있다는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꿈꾸는 자는 저와 함께 합시다~



기호3번 쌍둥의당

3 이원○,윤○

박근우 후보님 제가 이원○ 입니까? 이윤○ 입니까? 맞춰보십시오 여러분 쌍둥이인 만큼 1반의 일에도 두배로 관심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모의마을 미소천사 저희 얼굴만 봐도 힐링되지 않나요? 여러분 1반의 반장 누굽니까아아아아!?



기호4번 바른몸당

4 김○직

L-tube를 하다. G-tube를 했다하여 저는 배신자가 아닙니다. 저는 다리를 곧게 뻗을수 있는 바른몸 전문가입니다. 제가 반장이 되면 1반 가족들 건강을 위해 저의 남은 열정을 모조리 쏟겠습니다. 백세인생~ 함께하자 전해라~~♪ ♪ ♪



기호5번 정리당

5 남○용

노동이 당당한 1반! 1반의 정리를 담당할 남○용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환경과 서비스를 원하십니까? 쾌적한 환경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1반을 대표한 반장 후보자들의 공약 및 인사말을 들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요셉1반의 새로운 출발~
모든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하도록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요~

테마여행

설렘가득 제주여행

2017. 3. 21 ~ 3. 23



박서용 거주인

하늘 아래로 펼쳐진 제주의 풍경은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아름다웠다. 예전에 명휘학교에 다닐 때 여행 갔던 적이 있었지만, 23년 만에 다시 찾은 제주도 여행은 나를 매우 설레이게 했다.

제주공항에 도착하니 아침 일찍 일어나 서둘러 떠나서인지 피로가 몰려왔다. 하지만 피곤함도 잠시 어딘가에 마음마저 시원해지는 바람이 불어왔다. 그래서 바로 제주도에 왔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처음으로 간 곳은 한림공원이었는데 다양한 식물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공원을 산책하며 다양한 식물들을 보며 신기하기도 하고 자연이 주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 마음이 여유로웠다.

다음코스는 선녀와 나무꾼 테마 공원이었는데 추억을 연상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었다. 그중 학교 교실에서 옛날 교복도 직접 입어보며 추억여행을 잠시나마 떠나보기도 했다. 또, 디스코장으로 꾸며진 곳에서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추었는데 스트레스가 풀리고 기분이 매우 좋았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은 빨리 지났고 그 시간이 짧게만 느껴졌다.

다음날은 섭치코지, 천지연폭포, 아쿠아플라넷을 관람하였는데, 천지연으로 이동하기 위해 지나갔던 애월 해변도로의 유채꽃밭은 봄이 왔음을 실감하게 했다. 해변의 풍경을 감상하며 도착한 천지연폭포는 매우 웅장하고 시원하게만 느껴졌고, 떨어지는 폭포수를 보며 포즈를 취하며 인증샷도 찍어보았다. 아쿠아플라넷에서의 다양한 해양생물과 돌고래 공연 등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을 만큼 신비롭고 내가 바닷속에 함께 있는 기분이 들었다.

난생 처음으로 제주도에 와본다는 선○이 누나는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왔다는 것만으로 매우 감격스러워했다. 언제 다시 제주도에 오게될지 기약은 없지만 짧은 시간 많은 추억을 새길 수 있어 참 행복한 시간이었다.

2박3일의 제주 여행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며 여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좋은 사람들과 함께한 여행은 힐링의 시간이 되었고, 기회가 되면 개인적으로라도 다시 한 번 꼭 가보고 싶다. 마지막으로 고생하신 선생님들과 함께 동행한 부모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외부지원사업

2017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신청사업 중증장애인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노래교실

2016년에 이어 2차년 사업으로 노래교실을 운영중이다. 노래교실은 전문노래강사의 탁월한 진행으로 거주인의 입가에 웃음과 삶의 활력을 불어넣었다. 노래를 부르지 못해도 참여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무대로 나서는 열정파 거주인, 가수보다 더 간드러지게 완벽한 노래를 부르는 실력파 거주인, 노래교실시간을 통해 몸은 불편하지만 온몸으로 즐거움을 표현하는 거주인의 모습은 참으로 행복해 보였다. 행복충전~! 스트레스 타파~! 노래를 통해 진정으로 힐링하고 행복해지도록 노래교실 앞으로도 함께 즐겨요~



상담프로그램

상담프로그램을 우리는 힐링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장애로 인한 시설생활과 반복되는 일상은 거주인에게 스트레스요인이 될 수 있고, 사회적 관계를 맷는 것도 제한적이여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마음을 툭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 만으로 힐링이 된다는 참여자들~나를 표현하는 작업을 통해 진정으로 내면속의 나를 알아가고, 마음속 깊이 간직했던 상처는 흘려보내어 밝은 빛으로 가득 채우길 기대해본다.



보치아

중증장애인들에게 스포츠에 대한 자신감향상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제공하기 위해서 2017년 생활체육 지원사업으로 초보자 보치아 교실을 주1회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보치아의 기본이해와 기초기술을 습득하며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보치아 대회에서 우승을 목표로 파이팅~!!



충남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봉사단 활동 재료비 지원사업

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 지원을 받아 성모의마을 장애인대상 공예활동 교육 및 작품 만들기를 시작 하였다. 거주인 15명이 5월부터 9월까지 매월 1회 한국타이어 동그라미 봉사단과 함께 공예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한다. 보석을 만들고 도자기 채색을 함께 하면서 마음도 나누고 작품을 완성하면 환호성도 함께 내어 봅니다. 늘 가까이서 도움을 주시는 동그라미봉사단 회원님들 함께 만든 작품은 11월 작품전시회에 전시 할 예정입니다. 구경 많이 와 주세요!!



2017년 삼성디스플레이어와 함께하는 행복프로그램 놀이치료프로그램

2017년 삼성디스플레이어와 함께하는 행복프로그램에 선정되어 놀이치료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놀이치료프로그램을 통해 내면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여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여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다양한 피규어와 도구를 활용하여 내면을 들여다보고 이해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이 되는 것 같다. 항상 함께여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거주인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다.

앞으로도 마음을 열고, 서로 이해하며 소통하자~~!!



01

성모의마을 이모저모

01.10 가수 나비 공연



02

02.03 논산공고 졸업식



02.08 연산중 졸업식



02.15 한국문화예술원 공연



02.19 베이비부머 공연



03

03.15 거주인 소방교육



0323 공무원연수원



03.29 직원 소방교육



04

04.09 길명반점 자장면 봉사



04.19 정양원



04.20 장애인의날



04.23 가톨릭의사회 의료봉사



04.24 수자원공사 논산지부



04.26 한국타이어-1차 소풍



04.28 장애인문화예술제



05

05.05 노성중 21기 동창



05.10 성모의 밤



05.14 성모병원 사목회



05.14 성모병원 건강검진



05.18 삼성RC나누미-2차 소풍



05.29 장순루 자장면봉사



06

06.08 토지공사 대전본부



06.10 개원기념일 미사



06.11 미용봉사-박양순 아뜨레



06.14 거주인 인권교육



06.20 거주인 성교육



06.22-06.23 연세대 키비탄



06.22 연산치과



06.26 충청대간호학과 ACTIVE



06.27 카리타스 팔빙수봉사



06.30 최영은 국장님 정년퇴임





사랑을 주신분들입니다

성모의마을에서는 매월 넷째 주일에 후원자님을 위한
감사미사가 봉헌됩니다.

신규 후원자 : 첫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동신주유소. 해와나무출판사. 김시문. 김정숙. 김창수. 문진호. 박신환. 서영숙. 이순옥. 이영순. 이호덕. 임경
옥. 임동훈. 윤세종. 전혜련. 정영준. 최수민

후원금 (2017년 1월 1일 ~ 2017년 6월 30일 까지)

(주)대율. (주)진미식품. (주)후베나. 금강전기. 동덕엔지니어링. 대림농장. 대전내동성당. 성모의기사수녀회. 아이러브피플. 연산치과의원. 육군계룡사
랑후원회. 일신주방. 월드카센타. 정다운한의원. 태양철물건재상사. 하나병원유성근. 한국드라이아링(주).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지질자
원연구원. 한국타이어. 해피빈. 강대훈. 강덕일. 강명순. 강복순. 강승희. 강신균. 강애선. 강영미. 강영수. 강요셉. 강인숙. 강정미. 강정숙. 강차중. 강창
희. 강호정. 고순덕. 고연승. 고영숙. 고태성. 고효진. 곽동용. 곽명자. 곽성훈. 곽전구. 곽태희. 구교상. 구본관. 구자희. 구청자. 권기문. 권민경. 권수연. 권
순임. 권연택. 권재순. 권태형. 길숙종. 김경미. 김경숙. 김경임. 김광한. 김근태. 김기. 김기철. 김길자. 김낙윤. 김남순. 김도희. 김동일. 김동현. 김동화. 김
명숙. 김명중. 김명화. 김미선. 김미숙. 김미애. 김미영. 김미현. 김민관. 김민호. 김병민. 김복수. 김복순. 김봉진. 김부덕. 김상현. 김석환. 김선
아. 김선종. 김성남. 김성숙. 김성태. 김소영. 김수복. 김수자. 김수현. 김수희. 김숙. 김숙희. 김순례. 김순자. 김승우. 김양숙. 김양식. 김양임. 김연희. 김영
교. 김영규. 김영부. 김영분. 김영숙. 김영신. 김영옥. 김영임. 김영자. 김영택. 김영희. 김옥기. 김용목. 김용철. 김용희. 김웅전. 김윤미. 김윤중. 김윤하. 김
은경. 김은미. 김은숙. 김은정. 김은주. 김은형. 김의승. 김의현. 김인규. 김인숙. 김일우. 김정란. 김정숙. 김정순. 김정옥. 김정하. 김정현. 김정희. 김종
대. 김종성. 김종심. 김종영. 김종원. 김종운. 김종임. 김종학. 김주영. 김준. 김준형. 김준호. 김진숙. 김진순. 김진식. 김진아. 김진자. 김진팔. 김진희. 김창
수. 김창식. 김창현. 김철수. 김춘달. 김춘자. 김춘화. 김태만. 김태모. 김태운. 김택수. 김한울. 김한주. 김한준. 김현곤. 김현수. 김현옥. 김혜경. 김희경. 김
희성. 김희순. 김희옥. 나승준. 나인준. 나정은. 나정환. 나판균. 남궁각. 남봉우. 남순애. 노경옥. 노덕영. 노아네스. 노애선. 노영례. 노영자. 노은숙. 노은
주. 노희숙. 도인록. 류관숙. 류동열. 류영미. 류재율. 류홍. 리주옥. 모상선. 목동균. 문경희. 문창규. 민경식. 민병학. 민선옥. 민영기. 박경인. 박광천. 박광
필. 박근수. 박달영. 박동근. 박미나. 박미희. 박병삼. 박병택. 박복남. 박상준. 박상현. 박서호. 박선용. 박선호. 박성규. 박성배. 박성연. 박송현. 박순주. 박
승욱. 박승현. 박신환. 윤세종. 박영. 박영숙. 박윤자. 박은숙. 박은정. 박웅천. 박인자. 박정기. 박정순. 박정희. 박종찬. 박종희. 박주완. 박준성. 박지연. 박
진옥. 박진홍. 박찬배. 박찬주. 박찬현. 박찬희. 박창규. 박창기. 박준지. 박해운. 박해임. 박현미. 박현숙. 박혜경. 박호준. 박효식. 박희호. 방계순. 방성
식. 방영자. 배승호. 백길종. 백승준. 백진기. 변경봉. 변두균. 변혜숙. 복진을. 부모회. 서경자. 서광자. 서교분. 서교택. 서기련. 서단아. 서명원. 서성환. 서
장원. 서정석. 서정용. 서지연. 선우환호. 성정모. 성희창. 소성섭. 손경미. 손석재. 손선일. 손세욱. 손은숙. 손중옥. 손형기. 손형옥. 송관옥. 송기성. 송명
옥. 송수일. 송영익. 송재훈. 송철영. 송춘실. 수상덕. 승병희. 신경식. 신미숙. 신미순. 신상오. 신숙희. 신순자. 신순현. 신연화. 신이분. 신정자. 신진호. 신
향순. 신형모. 신호철. 신효신. 심명옥. 심복섭. 심형석. 안남순. 안동숙. 안명순. 안문숙. 안미훈. 안병옥. 안상길. 안성호. 안종희. 안주영. 양미경. 양
옥석. 양태식. 어완. 엄기성. 여운석. 연광흠. 연제혁. 염규홍. 염윤자. 염주란. 오경순. 오광순. 오명선. 오명화. 오미화. 오상근. 오석현. 오숙자. 오연임. 오웅
수. 오일교. 오점숙. 오종오. 오주영. 오주은. 오준식. 오준이. 오한나. 오현경. 오혜원. 온유진. 용명임. 우인자. 우전. 원용희. 원재화. 원종철. 유경희. 유기
화. 유명기. 유명희. 유미. 유부림. 유선희. 유양호. 유연희. 유열호. 유영구. 유영민. 유영철. 유이선. 유인운. 유재현. 유향옥. 유혜영. 육근홍. 윤경숙. 윤계
열. 윤길중. 윤문경. 윤병렬. 윤석권. 윤석남. 윤수자. 윤순자. 윤안례. 윤여분. 윤여직. 윤여철. 윤영광. 윤영섭. 윤영휘. 윤옥자. 윤옥희. 윤완규. 윤은화. 윤
재명. 윤정순. 윤진영. 윤한섭. 이경미. 이경순. 이경자. 이광수. 이규옥. 이근표. 이기남. 이기상. 이기석. 이기학. 이누욱. 이다리야. 이덕례. 이도영. 이동
근. 이동효. 이명수. 이명자. 이민옥. 이민표. 이병진. 이복구. 이복이. 이상범. 이상영. 이상욱. 이상은. 이선량. 이성민. 이성순. 이성하. 이세혁. 이수경. 이
수형. 이숙영. 이숙희. 이순조. 이순호. 이승남. 이승미. 이승옥. 이연호. 이연희. 이영란. 이영미. 이영옥. 이영임. 이영희. 이용구. 이용규. 이용규. 이용남. 이용
성. 이용연. 이용영. 이용호. 이원길. 이원웅. 이월향. 이유미. 이윤복. 이은선. 이은수. 이은진. 이은철. 이인엽. 이장. 이장현. 이장흡. 이장희. 이재룡. 이재
순. 이재연. 이전규. 이정규. 이정미. 이정범. 이정목. 이존오. 이종규. 이종숙. 이종옥. 이주경. 이준복. 이진경. 이진숙. 이진의. 이진형. 이종근. 이
치자. 이택주. 이해운. 이향래. 이현선. 이현수. 이현주. 이현희. 이해숙. 이해영. 이해옥. 이해진. 이홍천. 이화석. 이화연. 이홍재. 이희영. 임경수. 임경
옥. 임덕순. 임문화. 임미자. 임민준. 임민찬. 임범택. 임상수. 임세영. 임송옥. 임은수. 임재신. 임찬욱. 임향빈. 장경수. 장기욱. 장남미. 장동수. 장명호. 장
미화. 장선옥. 장순자. 장영희. 장우상. 장원재. 장유창. 장정숙. 장진영. 장진희. 장한순. 전경애. 전광운. 전선아. 전연인. 전영희. 전용달. 전창선. 전희

선.정경순.정경애.정계순.정병호.정보옥.정상수.정석임.정석환.정선미.정선주.정소영.정연수.정영준.정영진.정유진.정은남.정은석.정은선.정은옥.정은주.정재구.정지풍.정지현.정창수.정철민.정충희.정태형.정하숙.정혜숙.정화숙.정한림.정훈경.조경숙.조구상.조규정.조기호.조남욱.조성대.조성혁.조숙자.조숙희.조영갑.조영록.조영홍.조옥분.조유성.조진.조한수.조현.주면탁.지영옥.지영철.직원상조회.진구호.진은영.차미정.차영철.차옥남.차은.차인자.채경란.채미자.채병석.최경묵.최금옥.최덕화.최명희.최문자.최백석.최범순.최병립.최봉순.최상윤.최선.최선진.최성근.최순옥.최영범.최영은.최영훈.최우연.최윤정.최은자.최인규.최인영.최인향.최재원.최정길.최주희.최풍길.최해경.최혜수.최혜연.최효인.최희례.추현진.편재영.하만웅.하무순.하영호.하옥경.하재영.하태천.한강섭.한경희.한동림.한상선.한상조.한선화.한원규.한치권.허신자.허홍근.현현섭.호승환.홍건표.홍광표.홍근선.홍명숙.홍성옥.홍승무.홍영옥.홍영일.홍예인.홍용의.홍윤정.홍은실.황규성.황규홍.황명구.황선철.횡인옥.횡태성.횡현숙

물품후원

(주)대명실업, (주)애경, LG생활건강, 경애원, 광석중학교, 궁골된장, 권영학가족, 길명반점, 이수호가족, 김도희, 김동민 가족, 김명례가족, 임정수가족, 김양숙, 김영교, 김인수, 김정란, 김원혁가족, 김종필, 김한솔, 김현구, 나비, 논산푸드뱅크, 논산계룡농협, 동성초등학교, 대명초등학교, 라기무, 문희원 가족, 박규정, 박미경, 박미란가족, 박미리네, 박서용가족, 박재성가족, 박종덕가족, 박성수가족, 부모회, 삼성화재RC나 누미, 상월농협, 상월새마을부녀회, 상조회, 서울우유연무대리점, 성낙순가족, 성동식품, 성모병원재활의학과, 손선미가족, 송재근가족, 신도안종합상사, 신순자, 아이니스, 연산중앙교회, 오화진, 윤옥자, 이계천, 이수민가족, 이동기가족, 이란순, 이동우가족, 이소영, 이영희, 이예지가족, 이원선가족, 이재승, 이정옥, 임세영, 임군수가족, 장순루, 장은주가족, 장재희가족, 장태산정육점, 전민동성당, 전혜선가족, 정규연가족, 정영기, 정완수가족, 정제욱가족, 조만식가족, 조정연, 천동소리예술단, 최비오, 최성용, 최영은, 최옥진, 카리타스유통, 하나은행, 황정희, 현대수산

※ 알림 – 혹시 명단에서 누락되었거나 표기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런 물품이 필요합니다!!"

| 생필품 |

세제, 고무장갑, 휴지, 성인용기저귀, 물티슈 등

| 식 품 |

과일 및 간식류

| 그 외 |

냉장고, TV, 청소기 등 생활가전제품

봉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 1월 1일 ~ 2017년 6월 30일 까지)

정기자원봉사팀

가양동성당.갈마동성당.계룡대지원연대.계룡회.궁동성당.내동성당.대교동성당.대형환경.덕명동성당.도룡동성당.박정민.반석동성당.삼성화재RC나누미.삼위일체성당.전민동성당.정양원.중동성당.한국타이어.해군정보화기획참모부.LH토지공사대전본부.안제성가족.김윤중가족.김종필가족.학습봉사(노은동성당).홍예인가족.홍윤정.

그 외 봉사해 주신 분들

경애원.길명반점.노성중학교.노성중21기동창회.논산고RCY.논산육군훈련소.동방고등학교.부여성당.성모기사회원.성모병원사목회.연세대 키비탄동아리.유아인 맨클럽 아이니스.육군지원연대.지원연대해군군악의장대대.천안우체국물류지원센터.충남공무원교육연수원.충청대간호학과.한국수자원공사.카리타스

이·미용봉사

남희현.박양순아뜨레.하민하.한사랑라이온스.이발봉사(명성이용원.신상이용원.형제이용원.서복임.오미화.전혜숙).이명숙가족.전민동성당(이금언외)

의료봉사

가톨릭의사회.성모병원건강검진팀.성모병원재활의학과.연산치과

꽃꽃이봉사

공주신관동성당제대회

공연봉사

베이비부머봉사단.한국문화예술원(가수나비외)

미싱봉사

김정순.염영숙.이영임.이정.진영희



후원가입신청안내 (한사람 더 후원회원으로 이끌어주세요!)

전화 또는 성모의마을 홈페이지(www.smo.or.kr)를 통해 후원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서, 전화, 지로용지를 이용해 주시고 가입 후에는 회원증과 함께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분들께는 연말에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후원금 자동이체 신청방법에 대하여

은행에 가서 직접 등록하는 방법

아래 계좌 중 자동이체가 편리한 금융기관을 선택하신 후 본인의 통장, 도장, 신분증 등을 지참하시고 은행에 가셔서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모의마을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등록 및 변경시 참고)

폰뱅킹을 이용하는 방법

폰뱅킹을 이용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해당 은행 대표전화(아래)로 전화하시어 상담원을 연결하여 본인 확인 후 아래의 계좌번호 중 자동이체 받을 계좌번호를 말씀하시면 등록이 됩니다.



후원계좌번호

법인후원계좌번호

- 농 협 461058-51-011210 (대표전화 : 1588-2100)
- 국민은행 457-25-0005-696 (대표전화 : 1588-9999)
- 하나은행 663-113251-00105 (대표전화 : 1588-1111)
- 신한은행 100-009-187570 (대표전화 : 1577-8000)

- 예금주 -
성모의마을

시설후원계좌번호

- 농 협 351-0762-7852-13 (대표전화 : 1577-2100)



후원금수입지출현황 (2017년 01월 01일 ~ 2017년 06월 30일 까지)

(단위: 천원)

수 입 내 역		지 출 내 역	
과 목 명	금 액	과 목 명	금 액
이월금	307,957	급 여	30,698
지정후원금	44,190	제 수 당	27,475
비지정후원금	94,320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4,848
		사회보험부담비	4,090
		기타후생경비	1,613
		기관운영비	400
		회 의 비	1,544
		여 비	277
		수용비 및 수수료	18,524
		공공요금	24,306
		제세공과금	2,828
		시 설 비	116,973
		자산취득비	7,962
		시설장비유지비	3,616
		차 량 비	319
		연 료 비	1,600
		자활사업비	215
		일용잡금	233
합 계	446,467	합 계	247,521

콜베 성인의 영성을 살아가는 성모의기사수녀회에 초대합니다.



[창립]

본 회는 1917년에 로마에서 원죄없으신 성모의 기사회(Militia Immaculatae:M.I)를 설립하신 성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의 유지를 받은 미에치슬라오 미로하나 신부에 의해 1949년 일본 나가사끼에서 창립되어 M.I의 정신으로 사는 수녀회입니다.

[정신]

성 막시밀리아노 콜베의 정신에 따라서 원죄없으신 성모님께 모든 것을 봉헌하고 성모님에 의해,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을 통하여 예수성심의 왕국을 전파하기 위해 기도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사도직]

일본, 폴란드, 한국에서 M.I의 정신으로 사회복지, 의료, 교육, 출판사업과 한국에서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성모의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소자모임〉 매월 넷째 주일 오후 2시

문의 : 041-732-3583(수녀원) 041-732-2085,0889(사무실)

성소담당자 : 010-3399-3583

주소 : 충남 논산시 상월면 선비로1166(대촌리 122-1) 우)32907

※ 성소상담 수시 가능

홈페이지 _ www.fsomik.co.kr

성모의마을 찾아 오시는 길

》 서울 수도권에서 찾아올 경우

- 천안~논산간고속도로 → 정안IC<22.2Km>
- 약40분 소요 → 공주·논산방향(국도23번)
- 유평교차로 신원사방향(지방도로697)
- 연산방향(지방도로697번) → 대명초등학교 (1.5Km) → 성모의마을

》 대전 영남권에서 찾아올 경우

- 서대전IC<40Km> → 대전~논산간(국도1호선)
- 연산검문소(우회전), 연산삼거리에서(12Km)
- 상월방면(697번 지방도)
- 성모의마을



이 세상을 끔찍이 느끼는
사람입니다.

메리에 거제돈 사진은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습니다.